

대림 제1주일
(가 해)

제1독서 : 이사 2, 1-5
제2독서 : 로마 13, 11-14
복 음 : 마태 24, 37-44

숲 정 이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 24, 44)

강 론

희망하는 삶

사목국

뭔가 좋은 일이 있을거라는 희망은 삶에 활력을 주고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많은 돈을 버는 것, 유명해 지는 것,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는 것, 젊음이라면 좋은 직장을 얻는 것, 혹은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 등. 나름대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므로 세상은 아름답고 살 맛이 나는가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지니는 소망이다. 하느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희망 위에 더 높은 희망을 지니고 살아간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동안 바랐던 모든 소망들이 그분안에서 채워짐을 깨닫게 된다.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시기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분을 만나려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얼마나 더욱 값진 것인가. 마음에서 멀어진 이웃과의 화해, 나보다 못한 형제들을 보살피는 것, 아니면 그동안 척박해진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 성서를 가까이 하는 것등,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하느님의 큰 선물인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해야겠다. 더 나아가 이천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큰 선물인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하도록 하자.

소 리

하느님 앞에서 책임지기

단골로 다니던 서점에서 전화가 왔다. 며칠 후 서점을 닫게 됐다는 것이다. 경제사정 때문이라고 했는데, 오래 버틴 셈이다. 마음이 아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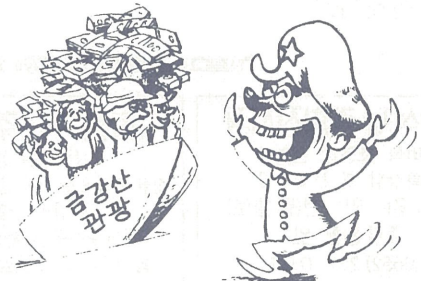
그 서점은 근처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참고서나 문제집을 취급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저 작은 규모의 단행본 서점이다. 우리나라가 아니었다면 그 서점은 쉽게 사라지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인 우리지만 그 교육열이란 게 진정한 인간교육이 아니라 입시교육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 독서점수를 정기시험에 반영하기 때문에 의무적인 독서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요즘 학생들에게 고전명작이란 것은 별 의미도 감동거리도 못 되고 있다.

제법 공부도 하고 수준있어 보이는 학생이 쉬는 시간에 읽고 있는 책 중에는 “영상소설 타이타닉”이란 것도 있을 정도다.

학교에서 필독독서를 정해 줘도 그것은 점수를 의식한 대상일 뿐이다. 선생님들이 책을 읽지 않으니 학생이 책을 읽으려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부모는 더구나 책읽는 일이 있을 수 없지 싶다. 요즘 같은 IMF 시대에는 모두 돈과 경제와 하나가 되어 정신없이 살아가게 마련인가 싶다.

그러다가 오늘 저녁 세상을 뜨게 된다면 그 빈 머리를 들고 하느님께 가야 할 것이다. [정]

숲 정 이 산책



“돈을 환영합니다.”



1998년 성령의 해

“아빠, 아버지의 해 · 사랑의 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첫 질문이다. “믿습니까.”라는 짧은 대답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라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된다. 조금 더 묵상하면, “실재하는 모든 것과 이루어 짐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며,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의 근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 천년기의 마감과 새로운 천년기의 시작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대희년 준비 마지막 해인 성령의 해 목표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교서 「제삼천년기」에서 윤곽을 잡아 놓으신 대로, 믿는 이들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시야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시야로 사물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버지의 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큰 순례”로 묘사한다.

이 순례는 각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신앙 공동체로 확장되며, 마침내 전인류에게 미친다 (「제삼천년기」, 49항 참조).

우리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 성부께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레 사랑이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루가 15, 11-32 참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모습은 사랑이신 아버지이시다.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의 쾌락과 방탕을 즐기던 우리는 영낙없이 ‘방탕한 아들’이다. 방탕한 아들인 우리는 이 성부의 해, 아빠, 아버지의 해에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자 초대받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정”(「제삼천년기」, 50항)이다. 회심과 고해성사는 이 여정과 분리될 수 없다. 제정신이 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루가 15, 18)라고 고백하며 발걸음을 돌린다. 회심과 고백이다.

이 회심은 “흔히 윤리적으로 올바른 인생관의 토대가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중요하다.”(「제삼천년기」, 50항)고 교황 성하께서는 강조하신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체험과 신뢰, 이 사랑에서 번져 나오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투신, 특별히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교회의 우선적 선택, 그리고 회심에서 비롯된 참다운 고해성사는 세속주의의 도전에 대한 극복과 대중교들과 나누는 대화와 함께 1999년 성부의 해의 주요 주제들이다.

이 주제들을 성실히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생활에 옮기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사랑의 모범이신 마리아의 전구를 구하도록 하자.

기쁘고 은총의 대희제 2000년 대희년까지 1년 1개월 1일 남았습니다.

<p>천일석재 종합전시장 묘비석, 조형물, 건축물 전화상담 및 무료상담 대표 : 강 인 선(말셀로) 죽림온천 앞 전시장 (0652) 231-0310 공 장 (0653) 862-0310, 0814 F A X (0653) 862-0309</p>	<p>동전주 주유소 <품질좋은 쌍용> 성실, 신용으로 시내 전지역 신속배달 소양, 진안 방면 초입 (우아동 파출소 옆) 황연옥(요셉) · 윤성자(수산나) ☎ (0652)245-5123, 5134(오일상사) (휴) 016-606-5134</p>	<p>침대공 전시장 (이 레 가 구) · 싱글 : 95,000원 · 더블 : 130,000원 부터 · 쿼 : 220,000원 전주점 (0652)211-8716-7 익산점 (0653)843-2676 군산점 (0654)465-2841 대표/김미숙(안젤라)</p>	<p>동보한의원 동부약국 최첨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 경 환(파비아노) 약사 범 순 복(안 나) 익산시 영등동 성당 옆 ☎ 한의원 (0653) 852-4666 약 국 (0653) 841-7217</p>
--	---	---	--

◎ 궁금해요

저는 10년간 냉담 후 성당에 나가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아직도 거림적입니다. 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을까요?

물론이지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는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그런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 모두 용서를 받습니다. 마태오 복음 16장 18-19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내가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제가 신자를 위해 사죄경을 외웠으면, 예수님의 권한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또한 세례 받기 전에 지은 죄나 고백성사로 한번 용서받은 죄는 다시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쯤할 때 지은 죄다, 항상 걸쩍지근혀서 몇번씩 고백성사를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느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해성사를 제정하신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 찬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굳게 믿고 그대로 주님만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교구·제 단체 소식

1. 빈첸시오회 월례회의 : 12월 5일(토) 오후 3시, 신동성당
2. 성모기사회 월모임 : 12월 5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3. 박성운 신부 주수변경 : (560-290)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205-2 전원빌라 가동 307호
☎ 232-2635
4.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12월 1일(화) 주제 - 찾아오시는 하느님 지도 - 김기곤 신부
12월 3일(목) 주제 - 구세주를 맞이하는 가정, 지도 - 범석규 신부
12월 5일(토) - 6일(주일) 주제 - 기다림과 희망 지도 - 이종한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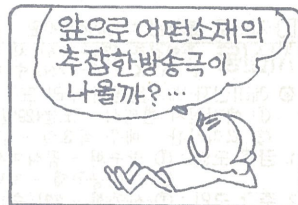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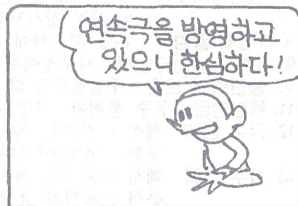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길

지난 11월 19일 전동성당에서는 ‘98 전주교구 추수감사 미사’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전주교구본부 창립대회’가 있었다. 농촌의 생산자들과 도시의 소비자들 700여명이 참석한 추수 감사 미사를 주례한 이병호 교구장은 강론을 통하여 온갖 농약과 유전자가 조작된 수입농산물이 주는 폐해가 점점 더 심각해 지는 이 때에 우리땅에서 재배한 믿을 수 있는 우리농산물을 애용하여 도시민과 농촌의 형제들이 함께 살 길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에 이어 진행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전주교구 본부 창립대회’에서는 본부장으로서 이재후 신부(교구 사회사목국장)를 선임하고 부분부장에는 박병준 신부(동산동 성당 주임)의 3인을 선임하였다. 이외에도 학계, 정계,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신도들과 사제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다.

‘99년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회’

11월 24일 오전 10시 율호관에서는 교구내 모든 본당의 사제, 수도자, 사목위원들과 각 단체장등 약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9년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회’가 열렸다. 1999년 성부의 해를 맞아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 이병호 교구장은 2000년 대희년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말했다.

요십이 (1321) 김병오



경로수녀원 성소피정

12월 12일(토) 오후 4시
- 13일(주일) 오후 5시
주제 : 구체적 응답
(자기적기와 방향)
장소 : 소양 해월리 경로 수녀원
문의 : (0652) 243-1440

죽림리조트 유행온천

당뇨, 피부병, 신경통 위장에 특효
사우나, 대중탕, 가족탕, 여관
이 붕 근(바오로)
국 장 호(요셉)
☎ (0652) 232-8832
(0652) 232-8757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희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서울가정의원

치질 전문 치료
입원하지 않고 수술 치료
무통, 초음파, 레이저
전문: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 덕진광장 앞
☎ (0652) 275-0550-1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의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케(면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 (하상 바오로)
☎ 225-5252, Fax 223-5332

명성제과제빵 기술학원

학력시대는 가고 전문기술자,
자격증 시대
속성반, 고등반, 주부취미반
군산, 장항, 서천 차랑은행
최 경 수(스테피노)
☎ (0654) 451-6550
군산의료보현조합입구 → 경포초등학교 맞은편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일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일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너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새로움으로 시작합니다.
- 1. 모임 : ① 전례부, 테니스회, 형제회 대표모임 - 교중미사 후
② 청년회 정기총회 - 오늘 저녁미사 후
③ 구역(반)장 정기총회 - 2일(수) 전 10시
④ 사목회 상임위원회 - 4일(금) 후 7시 30분
⑤ 레지오 푸리아 - 6일(주일) 교중미사 후
- 2. 구역 성화의 달 : 12월은 한강구역과 기타구역 성화의 달임.
- 3. 성서와 교리교실 특강 : 2일(수) 후 7시 30분, 왕수해 신부님 특강
* 하느님 아버지의 해를 맞이하면서
- 4. 구역 가정방문 : 3일(목) 한강구역, 4일(금) 기타구역
- 5. 성시간 : 3일(목) 저녁미사중에
- 6. 구역(반)모임 : 반모임과 형제회 모임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 7. 가정 성서모임 : 매주 토요일에는 가정 기도 모임을 하시길.
* 가정 성서모임 수월 성탄절 규유에 불원함.
- 8. 제단체 활성화 : 본당 제단체에 가입하여 신자 사명을 다하시길.
- 9. 기부금 납입증명서 : 사무실에서 원적을 준수하여 떼어 가시길
- 10. 봉헌의식 운동 : 주일헌금을 더 내시고, 교무국은 월납을 바랍니다.
- 11. 특별헌금 : 금주 봉헌자 - 3명, 봉헌금 - 100,000원
- 12. 금주 전례 : 해설 - 김준수, 독서 - 정해춘(토마노)부부
봉헌 - 엄재운(토마스)가정
- 13. 차주 전례 : 해설 - 문승욱, 독서 - 박만복(레오)부부
봉헌 - 최영재(요셉)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864,090원 □ 교무금 : 2,751,000원

서신동 주일신부 274-9261 사 무 실 274-9260 주일신부 오 현 택
F A X 274-9260 수 너 원 274-9262 사목회장 유 준 웅

- ◎ 예비신자 배가운동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합니다!
- ① 예비신자 환영식 - 오늘(29일)공식미사 중, 임교신청 - 사무실
② 교리시간 : 매주 화요일 - 후 2시, 후 8시
- 1. 금주 모임 : ① 방주회 - 공식미사 후, 4회의실
② 청년공동체 - 저녁미사 후, 4회의실
- 2. 주간 모임 : ① 사목회 - 2일(수) 후 8시
② 제대회 - 3일(목) 전 10시 ③ 구역(반)장모임 - 4일(금) 후 2시
④ 성모회, 자모회 - 5일(토) 전 10시
- 3. 차주 모임 : ① 요아킵회, 안나회 - 공식미사 후
② 푸리아 연차 총 친목회 - 후 2시 * 차주 : 빈켄시오회비 납부일
- 4. 구역미사 및 판공 : 12월 1일(화) - 1, 2, 3 구역
2일(수) - 4, 5, 6 구역, 3일(목) - 7, 8, 9 구역, 4일(금) - 10, 11(롯데)구역, 8일(화) - 12(비사벌), 13(신일)구역, 9일(수) - 14(광진)
15(쌍용)구역, 10일(목) - 16(성원), 17(제일비)구역, 11일(금) - 18(남양대명), 19(현대)구역, 15일(화) - 20(동아), 21(선수촌)구역
16일(수) - 23(대우엘지), 24(중흥)구역
* 미사시간 변경 : 화, 수, 금요일 저녁 7시 30분(12월 1일~31일까지)
- 5. 조당자 합동헌배 : 3일(목) 후 7시 30분, 사무실에 신청바람.
- 6. 대림 특강 : 차주(6일) 공식미사 중, 나춘성(스테파노) 신부님
- 7. 독서 : (새벽) 금주 - 장수택, 박영순, 차주 - 윤태희, 김부숙
(공식) 금주 - 김병균, 박구자, 차주 - 장동철, 김은숙
- 8. 미사 안내 : 금주 - 원죄없으신 모후Pr., 차주 -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Pr.
- 9. 차주 안내 : 금주 - 다윗의 탐 Pr., 차주 - 사도들의 모후 Pr.

□ 지난주 봉헌금 : 1,911,650원 □ 교무금 : 4,014,000원

용머리 주일신부 288-3872 사 무 실 287-0441 주일신부 박 기 준
수 너 원 281-0441 사목회장 최 공 곽

- ◎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선교하는 용머리 공동체!
- ◎ 대림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잘 준비합니다.
- 1. 금주 모임 : ① 요셉회, 사라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 - 2일(수) 후 7시 30분
③ 성모회, 성심회 - 2일(수) 미사후
- 2. 차주 모임 : ① 구역(반)장 - 9일(수) 미사후
② 본당 M.E 모임 - 나옥현(리노), 김창숙(소피아) 부부 때
- 3. 환자 봉성체 : 3일(목) 오전 10시
- 4. 성시간 및 성체강복 : 4일(금) 후 7시 30분
- 5. 오늘은 성소 후원회비 납부주일입니다.
- 6. 성탄 성가연습 : 매주 금요일 후 8시 * 많은 참석 바랍니다.
- 7. 대림절 기간 동안 1인 1명씩 예비신자를 인도 합니다 :
성탄때 봉헌
- 8. 연말이 다가옵니다 : 신립하신 교무금 납부 및 한해를 잘 마무리 합니다.
- 9. 축! 헌배 : 12월 6일, 낮 12시 30분
신랑 - 김동수군
신부 - 김정철(바오로) 장녀 김경진(글라리아)양
- 10. 성정신축 재신립, 감사합니다 : 김영래, 문복주, 백백화, 이형수
이형근, 조세열 함께 - 1,240만, 누계액 - 5,602만

□ 지난주 봉헌금 : 1,372,450원 □ 교무금 : 2,646,000원

우 전 주일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일신부 서 석 훈
보좌신부 226-0443 수 너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영 근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 근

-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
소계 - 3,150만 누계 - 902,855만
- ◎ 본당 전화번호부를 발행합니다. 사무실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고, 광고도 접수중입니다.
- 1. 금주 모임 : ① 요셉회 - 공식미사 후
② 여성분과회 - 4일(금) 전 10시 미사 후
- 2. 성숙된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 신청 바랍니다. * 선착순 - 100명
접수 - 사무실 3 금년도 교무금은 서둘러 납부하여 주시고, 미납된
신축헌금(공사비, 미지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 1,450,000(5세대)
- 5. 미사시간 안내 : 주 일 - 전 6시, 9시, 10시 30분, 후 7시
토요일 - 후 3시(어린이), 5시(중·고생), 7시(특전)
평 일 - 월~금 전 6시 (새벽미사), 화, 목 : 후 7시, 수, 금 : 전 10시
- 6. 예비신자 교리안내 : 신부님반 - 목요일(저녁미사 후)
수녀님반 - 화요일(전 10시)
- 7. 차주 모임 : 레지오 마리에 연차 총 친목회, 친주 모친 Cu.
성소후원회, 성령목상회, 울뜨레야, 자모, 성모, 성심회
- 8. 금주 전례 : 해설 - 이한은, 독서 - 김용만, 김은숙
봉헌안내 - 김상권, 이귀일 부부
- 9. 차주 전례 : 해설 - 이인숙, 독서 - 김영호, 강남주
봉헌안내 - 김용신, 박순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864,090원 □ 교무금 : 2,751,000원

화산동 주일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일신부 이 성 웅
F A X 221-9842 수 너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리라!
- 1. 금주모임 : 성모회, 구역(반)장 회의, 안나회정기총회 - 낮미사 후
* 구역별 대림한 가정 순회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2.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당해년도 헌납액에 대하여 증명서를 받
기 위하여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3. 예비신자 교리 : ① 화·수반 : 12월 1일(화), 2일(수) 후 8시
② 수·목반 : 12월 2일(수), 3일(목) 후 8시
- 4. 봉성체 : 12월 3일(목)
- 5. 성시간 : 12월 4일(금) 후 7시 30분
- 6. 성가연습 : 12월 1일(화) 후 8시
- 7. 판공 성사 : ① 초등부 5, 6학년 - 12월 5일(토) 후 2시 30분
② 중등부 - 12월 12일(토) 후 4시 50분
③ 고등부 - 12월 19일(토) 후 4시 50분
- 8. 사목회 : 12월 5일(토) 후 7시 30분
- 9. 차주 모임 : 푸리아 - 전 9시
* 성전신축 2차 헌금 * 음반보급활동 - 대구월성
- 10. 청소년 봉사 : 12월 5일(토) 예언자의 모후
- 11. 폐품 정리 : 12월 5일(토) 능하신 성녀
- 12. 화단 정리 : 12월 12일(토) 하늘의 문
- 13. 금주 전례 : 독서 - 이원길, 이우자, 봉헌 - 김영국, 최남순
- 14. 차주 전례 : 독서 - 황용주, 유숙자, 봉헌 - 김경호, 최규옥

□ 지난주 봉헌금 : 951,600원 □ 교무금 : 1,026,000원

효지동 주일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일신부 서 점 현
수 너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 오늘 본당을 위한 2차 헌금 있음
- ◎ 예비신자 인도에 총력을 다합니다. 당신은 예비신자 누구를 봉헌
하셨습니다? 성탄 전까지 1인 1명 이상의 예비신자를 발굴하여
주님앞에 봉헌합니다.
- 1. 지난주 예비신자 봉헌 하신분 : 황예성(세실리아) 3명, 서정홍(대
간드레아) 2명, 서춘욱(벨다) 2명, 김영혜(마리아) 2명, 백성숙
(로사리아) 2명, 신봉자(엘리사벳) 2명, 김이지(수산나) 1명, 임해
건(미카엘) 1명, 김인준(안토니오) 1명, 이한교(요셉) 1명
*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2. 금주모임 : ① 복음화 추진위원회 - 29일(일) 공식미사 후 ② 전례
해설단회의 - 29일(일) 공식미사 후 ③ 구역봉사자 모임 - 12월 2
일(수) 전 10시 30분 ④ 사목회 - 12월 4일(금) 후 8시 ⑤ 성모기
사회 - 12월 5일(토) 전 10시 3. 성서 교리교실 : 매주 화 전 11
시, 후 8시 * 바로 알고 바른 행함을 위한 - 교리교사 양성반
- 4. 98 성탄 판공성사 및 면담 : 12월 7일~12일까지(후 7시부터)
- * 각 구역별 면담일정은 게시판 참조 바람(성사표는 구역별로 나감)
- 5. 환자봉성체 : 12월 2일(수) 후 1시 30분부터
- 6. 제단체의 임원명단 사무실에 제출오망 : 개편또는 유입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명기 바람.
- 7. 이웃사랑기금 : 15일부터 20일까지(480,000원)
- 8. 축! 헌인 : 29일(일), 낮 12시
신랑 - 박병기(아오스딩), 조희순(베로니카)의 1남 박종근(안토니오)
신부 - 이병선(시몬), 최정희(요안나)의 1녀 이은선(세실리아)
- 9.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 황제A 구역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니다!